

사랑하는 창신성결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설 명절을 통해 가족들의 온정을 함께 나누시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에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존귀한 사람을 키워내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신성결교회 담임목사 이종복 드림



### 명절에 드리는 예배는 온 집안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차례(茶禮)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명절에 드려지는 제사인 차례를 대신하는 의미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과 금년 한 해 동안도 은혜 중에 인도해주심과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초나 향을 피운다거나, 절을 하는 행위 등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의 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부모나 부모들의 신앙을 함께 연결하고 추모하고 가족 각자의 다짐을 함께 나누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뜻깊은 일이기도 합니다.

## 설 날 가 정 예 배

2020년 1월 25일(음 1월 1일)



예 수 교  
 대한성결교회

창 신 교 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5길 22호 [www.changshin.org](http://www.changshin.org)  
 Tel. 765-6850~3 / Fax. 765-6769

# 설날 가정 예배

※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설날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	고 후 9:8	.....	인도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	.....	73장(통73)	.....	다같이
기도	.....			가족중에서
성경	.....	눅 10:25~37(신약 p.110)	.....	인도자
		성경봉독은 다른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찬송	.....	85장(통85)	.....	다같이
		가족들의 특별찬송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	.....	복이 되세요!	.....	인도자

성경은 성도들이 이미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지요,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또 한 해라는 시간동안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며 달음질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한 해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영생을 거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위협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25절) 질문 속에 오류가 숨어 있음을 예수님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유한한 인간이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율법 때문에 구원에 대해 몽학선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신분, 행동, 소유, 능력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요 3:15).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목숨을 담보로 그의 소유된 백성에게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27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없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하늘의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 인사는 “복 많이 받으세요!”를 넘어 “많은 복이 되세요!”라고 해봅시다.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가정과 일터, 사회와 민족을 향해 나누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째. 영생을 거저 받은 우리는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27절).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성경에 기록한 대로 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하지만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28절)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29절)라고 반문합니다. 율법교사는 여전히 철저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아야 하고, 자신이 정한 이웃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전해주시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할 것을 권유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강도만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나눔으로 죽음을 앞에 둔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36절) ‘사마리아’란 단어조차 입으로 거론하는 것을 싫어하는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회피하며 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 해에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늘의복을 나눔으로 나로 인해 복이 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었을 때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부터 나눔으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나 중심의 나눔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나누는 풍성한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나눔	.....	다같이
----	-------	-----

※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낀 점을 가족끼리 함께 나누어봅시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나눔이 끝나시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 1)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 2) 내가 복이 되어 이웃에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송	.....	310장(통410)	.....	다같이
축복기도	.....			다같이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새해 비전을 말하고 집안 어른들은 그 비전들을 듣고 기도해줍니다		
주기도문	.....			다같이